

1920~1950년대의 출생의례복

-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

김 정 아*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Clothes for Newborn Celebration Event from the 1920s to 1950s - Focusing on the Central Region -

Jeong Ah Kim* · Na Young Ho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09. 5. 7, 심사(수정)일: 2009. 7. 6, 게재확정일: 2009. 7. 15)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children's clothing in *Seoul · Gyeonggi-do, Chungcheong-do* and *Gangwon-do* between the 1920s~ 1950s, by comparing positive data collected from pictures and literatures, remains and interviews. A *baenaet jeogori* was made of soft white cotton fabrics and was used as a charm when the baby had grown and had an test or a big occasion. A *dureong chima* and *pungcha* trousers were clothes for both boys and girls from their birth to the age of 4~5 when they could have bowel movements by themselves. Occasions for celebrating a baby's growth were the one-hundredth day and the first birthday. In general, ordinary families had their babies' one-hundredth day in a simple way without special clothes. On the first birthday, however, even ordinary families prepared new clothes for their babies, and read their fortune and prayed for their well being and long life through events such as *doljabi*. In the age when medicine was poor and the infant mortality was high, the meaning of such a ceremony was to congratulate on the baby's safe growth through dangerous moments.

Key words: children's clothing(아동복식), childbirth rituals(출생의례), period under japanese colonial(일제강점기), interview(면접조사)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개인이 출생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반드시 아동기를 거쳐야하는데, 영아의 사망률이 높았던 전통사회에서는 아이가 출생하여 건강하게 아동기를 거쳐 장수하기를 소원했다. 출생한 아이가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양한 주술적인 행동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출생 후 입히는 의복에 그러한 염원을 담기도 했다.

세부적인 디테일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동이 성장하면서 입게 되는 복식의 형태는 대부분 성인의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아동이 출생하면서부터 5~6세 정도의 유아기까지 입게 되는 의복은 성인의 것과는 그 구성이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성인의 의복에는 담겨져 있지 않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의 복의 연구는 성인의 의복을 기준으로 제시되는 많은 복식의 원형이나 의미와는 다른 차원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복식사 연구 중에 아동의 복식을 독립적으로 살펴본 것은 성인복식의 연구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동복식에 관한 기록이나 유물 등의 자료가 성인에 것에 비하여 적기 때문이다.

아동이 출생한 후 유아기까지를 다룬 연구는 아이의 잉태과정부터 출산과정을 다루는 산속(産俗)¹⁾이나 기자신앙(祈子信仰)²⁾을 중심으로 한 것이나 출생의례³⁾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산속과 복식에 관한 현지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⁴⁾의 경우는 현지조사의 사례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아 개괄적인 아동복식을 파악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보고서로 경기민속지⁵⁾는 일생의례와 의, 식, 주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일생의례편에서 다룬 출산의례는 조사대상자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룬 것으로 복식에 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의, 식, 주편에서는 경기 지역을 북부, 동부, 남부로 나누어 의생활을 정리하였는데 연구자에 따라 언급한 아동복의 내용이 차이

가 있고, 성인복과 의류관리 등의 내용과 함께 나열되어 있어, 독립적인 아동복의 연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출생의례와 함께 복식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경우⁶⁾에도 특정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연구의 범위가 비교적 협소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아동의 복식을 의례와 연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시대는 1920~1950년대로 한정하고 이 시기의 아동복식 중 출생의례에 의해 구분되는 복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복식에 담겨있는 금기(禁忌)와 기원(祈願)등의 풍속이 실생활에 적용되었던 사례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시기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며 아직까지 조선시대의 전통복식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 서양문물의 유입과 함께 들어온 서양복식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자료가 희박했던 이전 시대의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 자료들과 복식유물 등이 있어 복식의 변천을 고찰하기에 적절하다. 아동복식의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계층이라 할 수 있는 왕실의 자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복식 연구에 있어서 개별면접을 통한 실증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연구범위에 적합한 개별면접자의 확보나 오랜 시간의 소요, 면접의 진행과정의 어려움과 더불어 연구결과가 자칫 보고서 형식의 나열에만 그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면접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실증자료는 이론적인 바탕과 유물의 실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복식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유물의 고찰과 더불어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별로 확보한 조사대상자들과 개별면담을 통한 실증자료의 확보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시기의 사진, 문헌 등의 자료와 유물자료를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경기, 충청, 강원지역으로 정하였는데 이 세 지역은 우리나라의 중부에 위

<표 1> 개별면접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	번호	성명	출생연도	고향	혼인연도	첫 자녀 출생 연도	교육경도
서울 · 경기 (A)	①	윤순×	1909년	서울	1928년	1929년	하
	②	유순×	1916년	서울 청진정	1935년	1936년	하
	③	임점×	1916년	경기 음덕면	1934년	1936년	하
	④	조라×	1916년	강화도	1935년	1937년	상
	⑤	홍오×	1917년	경기 이천	1935년	1937년	하
	⑥	박재×	1919년	경기 용인	1937년	1939년	하
	⑦	홍봉×	1925년	서울 창신동	1941년	1943년	하
	⑧	이경×	1925년	경기	1943년	1948년	중
	⑨	임순×	1926년	서울 압구정	1943년	1944년	하
	⑩	박체×	1933년	서울	1973년	.	상
충청 (B)	①	최석×	1916년	충남	1931년	1941년	하
	②	유부×	1918년	충남 보은	1936년	1938년	하
	③	윤자×	1919년	충남 천안	1937년	1938년	하
	④	유간×	1920년	충북 문인면	1938년	1939년	하
	⑤	권원×	1921년	충북	1943년	1945년	하
	⑥	송상×	1922년	충북 문인면	1939년	1940년	하
	⑦	오이×	1923년	충남	1940년	1941년	하
	⑧	태명×	1924년	충남 현도	1943년	1945년	중
	⑧	박선×	1930년	충남 당진	1947년	1949년	중
	⑩	박상×	1932년	충남 예산	1951년	1952년	중
강원 (C)	①	최모×	1915년	강원 양양	1933년	1939년	중
	②	박계×	1918년	강원 홍천	1936년	1938년	하
	③	정귀×	1922년	강원 양양	1942년	1944년	중
	④	박시×	1923년	강원 강릉	1943년	1945년	하
	⑤	이원×	1923년	강원 강릉	1942년	1944년	중
	⑥	김희×	1927년	강원 강릉	1947년	1949년	상
	⑦	최복×	1929년	강원 철원	1948년	1950년	상

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여 있으므로 중부지역 아동복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차후 남부와 북부 지방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복식의 상호 비교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한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질문을 작성하였고 면접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개별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개별면접자의 아동시절 의복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과정에서 입힌 의복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출생의례의 성격상 개별면접자가 직접 착용했던 의복보다는 면접자가 결혼하여 출산한 자녀의 의복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별면접자는 조사대상 지역에서 출생하여 혼례⁷⁾ 이후에도 그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이주를 한 경우에도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인접지역으로 옮겨 거주한 70세 이상의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내용의 대부분이 개별면접자의 기억과 경험에 의존한 것이므로 개별면접자가 의복에 관한 관심이 높거나 의복을 제작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면접시간은 주로 낮 시간에 실시되었고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개별면접자가 사진이나 의복 등의 실물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1차 면담 이후에 2차나 3차까지 전화 또는 재방문을 통한 재면접을 실시하였다.

II. 출생의례의 의미

한 개인은 출생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몇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이를 '통과의례(通過儀禮)'라고 한다. 반겐넵(Van Gennep)의 저서 *Les Rites De Passage* 에 처음 사용된 이 말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연령, 신분, 상태, 장소 등의 전이(轉移)단계에서 시행되는 출산의례(出產儀禮), 입사식(入社式), 결혼식(結婚式), 상례식(喪禮式)을 일컫는 것으로 현재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널리 쓰이는 개념이 되고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통과의례(通過儀禮)'와 흡사한 것으로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를 내용으로 하는 '사례(四禮)'의 개념이 널리 통용되었다. 통과의례와 사례(四禮)의 차이는 전자에는 출산의례가, 후자에는 제례가 있는 것인데 사례에 출산의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근대이전까지 유아사망률이 높았고 자연적 출생보다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출생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⁸⁾

출생의례(出生儀禮)는 통과의례의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에 따르는 의례를 말하는 것으로 출산의례 또는 탄생의례라고도 한다.⁹⁾ 우리나라의 출생의례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 전부터의 준비 과정과 아이를 낳은 후에 치르게 되는 의례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출생의례는 크게 산전의례(産前儀禮), 출산의례(出產儀禮), 산후의례(産後儀禮)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산전의례는 잉태(孕胎)를 전후해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례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식 낳기를 바라는 기자의례(祈子儀禮) 및 잉태 후의 태교(胎教) 등이 포함된다.

출산의례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과 분만 후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의례들을 말한다. 출산의례에는 출산을 위한 준비, 산실(産室)과 삼신, 순산을 위한 방법, 출산 때의 금기사항, 산파, 태(胎)의 처리 등 순산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례가 포함된다. 또한 분만 후에 행하는 산후 금줄과 산후 금기의례도 출산의례에 포함된다.

산후의례는 해산 이후 산모의 몸조리와 아기를 위한 여러 일들을 날짜에 따라 행하는 의례를 말한다. 여기에는 이레행사, 백일, 돌 등이 있다.

III. 출생의례복

출생의례복이란 아기가 출생 직후부터 첫돌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절목마다 아기에 입히는 의복을 말하는 것으로, 궁중발기를 통해 조선말 왕실에서 입었던 왕자나 공주의 출생의례복의 일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실복식이 아닌 민간의 출생의례복에 관한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고 조선시대의 기록이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평생도에 기인한 첫돌 복식의 구성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말기의 출생의례복의 구성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품목별로 정리하였다.

1. 출생복식

1) 배넛저고리

배넛저고리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 입히는 옷으로 어느 지방에서나 공통적으로 입혔다. 문헌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씻기지 않고 강보(襁褓)¹⁰⁾에 싸두었다가 3일이 지나야 비로소 몸을 씻기고 배넛저고리를 입혔다. 이것은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영아의 사망률이 높아서 아기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산모와 아기가 힘든 출산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3일 동안은 안정을 취하고 3일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풍습은 개화기를 거쳐 본 연구의 조사기간인 1920~1950년대에도 일부 남아있으나 대부분의 개별면접자들은 3일을 기다리지 않고 아기를 출산한 후 바로 씻기고¹¹⁾ 배넛저고리를 입혔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위생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배넛저고리를 입히는 시기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이나 집안의 풍습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아기가 태어난 후 바로 입히거나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입히거나 혹은 임의대로 입히기도 한다.¹²⁾ 일반적인 배넛저고리의 형태는 깃과 쇠이 없고 아기의 손등을 덮을 수 있도록 소매를 길게 한 것이다. 2001년 경기도에서 발굴된 남아미라의 출토품으로 나온 배넛저고리는 전장후단(前長後短)으로 뒤가 짧고 앞이 긴 형태이며 고대부분에 좁고 짧은 깃이 달려 있어서¹³⁾, 조선말기의 배넛저고리의 유품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도 있다. 배넛저고리는 옷의 크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대개 삼칠일 또는 백일까지 입히기도 하였다.

배넛저고리의 색상은 대부분 흰색이며 연약한 아기가 입는 옷이므로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광목이나 옥양목, 소창, 용 등의 면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다.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장수한 노인의 옷을 뜯어서 만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아기 옷은 반드시 칠팔십세(七八十歲) 노인의 살 당던 옷이거나 그 부모의 (헌) 옷으로 해야하니, 능라금수(綾羅錦繡)로 새 옷을 한 즉 한갓 복을 아끼는 도리를 어길 뿐 아니라 반드시 아기가 병이 난다.¹⁴⁾

七〇~八〇歲 老人의 헌옷으로 小兒의 衣衿을 지어 입히면 眞氣가 서로 滋養이 되어서 아이로 하여금 長壽하게 하는 것이며, 富貴한 집에서 新綿과 綿으로써 아이 옷을 만드는 것은 疾病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한 福을 더는 것이다.¹⁵⁾

이러한 풍습은 일부 개별면접자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 ① 무명 그걸루 뜯어서 만들더라구. 오래 살은 시아버님, 명길다. 그렇게 입히면. <B④>
- ② 처음에 그냥 새 놈으로 안하고 할아버지 두루마기를 뜯어서 해 주면 좋다고 해서. <B⑨>
- ③ 첫딸 낳는데 즈 할아버지 혼 바지 떨어진걸루 다 했는데 금방 떨어지더라구. <C②>

그러나 대부분의 개별면접자들은 면직물을 사용하여 배넛저고리를 만들었다. 또한 개별면접자들은 아버지나 장수한 어른의 옷을 뜯어서 아기의 배넛저고리를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모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① 배넛저고리는 새 옷감으로 사다가 짓는겨여. <A②>
- ② 아버지 바지 뜯어서 만들고 이런 건 난 잘 몰라요.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 입혔지. <A⑨>
- ③ 어려우니까 그라는겨. 혼바지 뜯어 하지. 하두 해줄게 없으니까. <B②>
- ④ 나는 첫아이 나서 즈 할아버지 바지 떨어진 걸루 했어. 그게 첫딸이라서 할아버지 바지 뜯어서 한 개 아니라 읊서서 그러. <C②>
- ⑤ 옛날에 배넛저고리도 잘하는 집덜은 옛날 모달리라고 있잖아. 지끔 말로 용이라 해. <C④>

일반적으로 배넛저고리는 부드러운 면직물로 만들었는데 용이나 광목을 많이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서는 용을 '모달리'¹⁶⁾ 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배넛저고리는 무명실을 몇 겹 꼬아 고름 대신 달아주는데 이것은 아기의 수명이 실처럼 길게 이어지라는 기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실을 고름 대신 달아줄 때에는 가슴을 한번 돌려서 묶어줄 정도로 길게 하고 실 끝을 가위로 자르지 않는데 이것 또한 아이의 수명이 실과 같이 잘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넛저고리는 입히는 시기나 형태에 있어서 정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집안마다 풍습에 맞게 입혔다. 일반적으로 흰색의 면직물로 만드는데 아기의 배넛저고리는 다른 의복과 달리 부적과 같이 사용하는 풍습이 있다. 배넛저고리를 지니고 있다가 아이가 성장하여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치를 때 옷 속에 넣어 주면 합격한다고 한다.¹⁷⁾ 지방에 따라 사용하는 배넛저고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풍습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사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를 염원하는 의미로 장수한 노인의 옷을 뜯어서 만들기도 했다.

- ① 옛날에 손녀 중학교 시험 볼 때 요만하게 접어서 안 호주머니다 너꼴어. 합격했어. <A①>
- ② 작은 시할아버지가 무슨 재관이 있다가 배넛저고리를 가지고 오셔서 당신 마고자에다가 붙여 달라고 그러시대. 재관해서 이겼지. <A③>
- ③ 첫애 저고리 뒀다가 시험 보러 갈 적에 등에다가 붙여 줘. 그래서 합격했어. 주로 첫애 걸 쓴다고 그러대. 첫아들 첫딸 상관없고 괜잖어. <A⑦>
- ④ 애기 때 배넛저고리 우리 큰 아들 대학교 갈 때 옷에 넣주면 좋다구 해서. 대학교 잘 붙었

- 어. <B④>
 ⑤ 큰 아들이 서울가서 시험보는데 양복 속에다가
 몰래 꼬매 쫓아. 대번에 붙었어. <B⑤>



<그림 1> 배넛저고리
 박체× 소장, 1933년

<그림 1>은 박체× 소장의 배넛저고리로 소장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실로 고름을 단 것으로 기본적인 배넛저고리의 형태를 볼 수 있다. <표 2>는 개별면접자가 사용한 배넛저고리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2) 두렁치마

두렁치마는 두렁이라고도 하며 아기의 출생 후 보름에서 한 달 정도¹⁸⁾ 지나 아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배넛저고리 위에 입혔다. 두렁치마는 찬기운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배 위에 둘러주는 것으로 형태는 성인의 치마와 비슷하나 뒤가 겹치지 않게 만든다. 이와 같은 형태는 아기가 누워 있을 때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이불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두렁치마는 무명이나 광목 등의 면소재나 명주를 사용하여 누비로 만들기도 하고 겹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치마 앞쪽에서 양쪽으로 주름을 2~3개 잡기도 한다.

제작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옷 겹 이불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인지 개별면접자 대부분은 두렁

<표 2> 1920~1950년대 배넛저고리의 특성

지역	번호	색상	소재	배넛저고리를 입힌 시기	고름	배넛저고리 사용경험	배넛저고리 만든 사람
서울 · 경기 (A)	①	흰색	소창	출산 후 3일째	실	있음	본인
	②	흰색	용	출산 후 3일째	실	.	친정어머니
	③	흰색	용	출산 후 3일째	실	있음	시아머니
	④	흰색	가제(거즈)	출산 직후	실	없음	본인
	⑤	흰색	.	출산 후 3일째	.	없음	본인
	⑥	흰색	광목,소창	출산 후 3일째	실	알고 있으나 안했음	본인
	⑦	흰색	소창	출산 직후	실	있음	본인
	⑧	흰색	여름:인조/겨울:용	출산 직후	실	있음	본인
	⑨	흰색	광목	출산 후 3일째	실	있음	아버지 것을 대물림
	⑩	흰색
충청 (B)	①	흰색	용	출산 직후	옷감	있음, 빌려주기도 함	사다입힘
	②	흰색	광목/배짜치(무명)	출산 직후	실	있음	본인
	③	흰색	무명	출산 직후	실	알고 있으나 안했음	본인
	④	흰색	용/시아버지저고리	출산 후 3일째	실	있음	시아머니
	⑤	흰색	소창,용	출산 직후	.	없음	사서 입힘
	⑥	흰색	무명	출산 후 3일째	옷감	있음	시아머니
	⑦	흰색	용	출산직후	실	알고 있으나 안했음	본인
	⑧	흰색	광목,무명/할아버지두루마기	출산 후 3일째	실	있음	본인
	⑧	흰색	용	출산 직후	실	알고 있으나 안했음	본인
	⑩	흰색	여름:인조/겨울:용	출산 직후	실	알고 있으나 안했음	시아머니
강원 (C)	①	흰색	광목,옥양목	출산 직후	실	없음	친정 언니
	②	흰색	아버지 바지	출산 직후	실	없음	본인
	③	흰색	면	기억 안남	실	있음	시아머니
	④	흰색	용	출산 직후	실	있음	본인
	⑤	흰색	모달리(용)	출산 직후	실	알고 있으나 안했음	친정어머니
	⑥	흰색	소창	출산 직후	옷감	없음	친정어머니
	⑦	흰색	양달양(용)	출산 후 3일째	실	없음	본인

치마를 많이 사용하였다.

- ① 숨을 넣서 두둑하게 해 입히지 두렁치마. 두렁이 입는 건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입혀. 걸음마 하고 그럴 땐 다 두렁이 입히거든. <A①>
- ② 두렁치(두렁치마)를 치마 모양 그렇게. 어려서 네 살 다섯 살. 남자도 입고 여자도 입고. <A③>
- ③ 두렁이(두렁치마) 해 입혀.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입으면 엉덩이 보이고 그라. 세 살 네 살 되도 그 때는 두렁이 입히지. <B②>
- ④ 애기 때는 두렁이. 우리 아들네 나서 그렇게 입혔어. 한 세 살 때 요렇게 입혔을 꺼여. <B④>
- ⑤ 갠애기 때는 인저 두렁이(두렁치마)라고 있어. 허리에다 이렇게 해서 입히고 뒤에 다 터지게. 여자애기나 남자애기나 그렇게 입혀. <C⑦>

두렁치마는 남아와 여아의 구별이 없이 입혔으며, 입히는 시기와 입히는 연령대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갓 태어난 후부터 4~5세 정도까지 입힌다. 이 시기는 아동이 배변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기저귀를 갈기에 편안한 옷을 많이 입히는데 풍차바지와 더불어 두렁치마는 기능적으로 편리해서 많이 입혔다.

3) 풍차바지

풍차바지는 아기가 출생한 후 4~5세까지 입히는 것의 하나로 남아·여아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입힌다. 풍차바지는 성인의 바지와 구성은 유사하나 뒤가 트인 형태이므로 배변훈련이 안된 어린아동에게 두렁치마와 더불어 실용적으로 입혔다.

대부분의 풍차바지의 허리는 말기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조끼허리가 보편적으로 생활에 상용된 이후에는 풍차바지에도 조끼를 달아서 입혔다. 이것은 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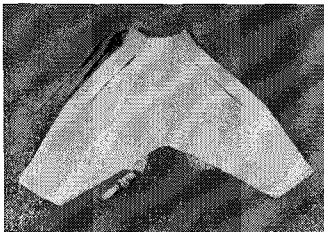
직입이 많은 아동에게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편리하게 사용되었다.

풍차바지는 자주 세탁해야 했으므로 실용적인 면직물로 많이 만들었으나 일부 계층에서는 명주나 비단과 같은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일본 직물이 수입되어 사용된 이후에는 하부다에¹⁹⁾나 뉴퐁²⁰⁾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면직물 이외의 소재를 사용하여 풍차바지를 만들 경우에도 안감은 면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연약한 아기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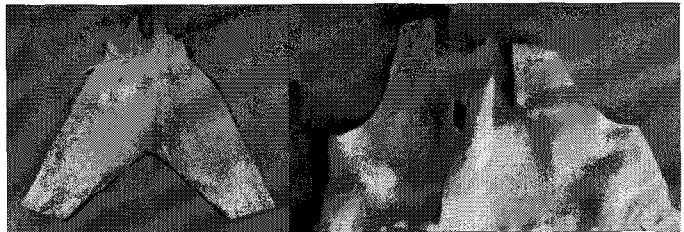
- ① 애기 때는 여자애들도 치마 안 입었지. 옛날에는 갈랑바지(풍차바지)를 해줬어. 뒤에 이렇게 무라고 해서 달린 거. <A③>
- ② 애들은 오줌 잘 싸잖아. 그러면 여기 터논 바지 입힌 생각이 나. 풍차바지라 그러나. <A④>
- ③ 풍차바지 입히고. 그냥 바지는 오줌, 똥 가려야 인저 입히지. <A⑥>
- ④ 기저귀 차니까 오줌을 자꾸 누잖아. 그러니까 풍차바지를 해 입히는 거지. 기저귀 갈아 채우기 좋으라고. 돌 전에는 많이들 그렇게 입혀. 여자애기나 남자애기나 그렇게 입혀. <C⑦>

풍차바지는 아동의 나이가 어린 유아기에 많이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계층의 아동들은 하의를 입히지 않고 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아동의 배변훈련이 끝나고 4~5세 이후에는 남아는 바지, 여아는 치마를 입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령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이나 집안의 풍습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그림 2>는 말기 풍차바지이며 <그림 3>은 조끼허리가 달린 풍차바지로 제작방식이 많이 개량된 것으



<그림 2> 풍차바지
박제× 소장, 1933년



<그림 3> 풍차바지
박제× 소장, 1933년

로 어깨에 스냅을 단 것을 볼 수 있다.

2. 삼칠일(三七日) 의복

아기가 태어나서 7일이 되면 초이레, 14일이 되면 두이레, 21일이 되면 세이레라 하여 행사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삼칠일²¹⁾이라고 한다. 행사 방법이나 내용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금줄²²⁾을 쳐서 부정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새벽에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흰밥과 미역국으로 삼신상을 차려 삼신²³⁾에게 올린다. 삼칠일 의복으로 아기에게 새 옷을 지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옷을 입히는 일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민층에서는 임의대로 옷을 새로 지어 입히거나 출생 직후 입혔던 배넛저고리를 그대로 입히기도 하였다.

개별면접자들의 대부분은 삼칠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개별적으로 삼칠일 행사를 행하기도 하였는데 행사 내용의 대부분은 <표 3>에서 보이듯이 삼신에게 밥과 국을 올리는 것으로 그쳤을 뿐 아기에 새 옷을 입힌 경우는 거의 없었다.

- ① 삼칠일 날 잘사는 사람은 국 끓이고 잔치를 해요. 나는 삼칠일에 만들어 준 옷 읊어. <A②>
- ② 삼칠일 뭘, 금줄 그 끌르시더라우. 삼칠일 옷을 만들어주는 건 없어. <A③>
- ③ 첫이레 날 국밥해서 빌어주구. 삼칠일에 옷 읊어. 그저 깨끗하게만 그냥 입히른 되야. <B②>
- ④ 아이 삼일 되면 그전에 인제 떡 해주구 설기해서 삼신기다 빌구. 옷은 내내 그거 입혔지. 처음이 만들어 준 배안이 저고리. <B④>
- ⑤ 삼칠일 삼신할머니한테 미역국 끓이구, 밥하구 이랬어. 옷은 새로 안해. 배넛저고리를 서, 넛해 놓으믄, 고거 갈아 입히구. <C①>

<표 3> 1920~1950년대 삼칠일(三七日)행사의 특성

지역	번호	삼칠일 행사	삼칠일 행사의 내용	삼칠일 의복	금줄
서울 경기 (A)	①	했음	삼신상	배넛저고리를 이때 입힘	했음
	②	했음	삼신상, 친척방문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③	했음	삼신상	배넛저고리를 이때 입힘	했음
	④	안했음	.	.	안했음
	⑤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⑥	기억 안남	.	.	했음
	⑦	했음	삼신상	배넛저고리를 이때 입힘	했음
	⑧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⑨	했음	삼신상	배넛저고리를 이때 입힘	했음
	⑩
충청 (B)	①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②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③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④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⑤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⑥	했음	삼신상	배넛저고리를 이때 입힘	했음
	⑦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⑧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⑨	했음	삼신상	배넛저고리를 이때 입힘	했음
	⑩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강원 (C)	①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②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③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④	안했음	.	.	했음
	⑤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⑥	했음	삼신상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⑦	했음	삼신상	배넛저고리를 이때 입힘	했음

이와 같이 삼칠일 의복을 새로 하지 않았던 것은 아기가 태어난 후, 바로 배냇저고리를 입히기 때문에 출생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삼칠일에 의복을 새로 지어 입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는 아기의 의복을 절목에 맞추어 다양하게 만들어 입힐 정도로 경제력이 풍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 백일(百日) 의복

백일은 아기가 출생한 날로부터 100일²⁴⁾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백날 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날 아기를 위해 배풀어주는 잔치를 '백일잔치²⁵⁾'라고 한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기가 태어나 백일까지 기르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 따라서 백일에는 아기가 위험한 고비를 어느 정도 넘기고 무사히 자란 것을 대견하게 여기어 축복하며 앞으로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치를 벌여 축하해 주었다.²⁶⁾

왕가에서는 백일에 누비바지, 저고리에 동다리를 입고 쾌자와 복건을 쓰고 행전을 치며 오목이를 신었다고 한다.²⁷⁾ 집안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서민층의 남아는 저고리와 풍차바지를 입고 여아는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특히 아기의 배냇머리를 깎아 주거나²⁸⁾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백 줄로 누빈 누비저고리나 백 조각의 천을 이어서 만든 저고리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백일에는 백일 떡을 돌리는데 그 떡을 받은 집에서는 그 그릇에 실, 돈, 쌀을 담아 주기도 하고 천 조각을 얹어 주기도 한다. 백일에는 다른 집에서 받은 백 조각의 천으로 아기의 옷을 지어 입히면 백인(百人)의 기원으로 장수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백일잔치를 하고 의복을 갖춰 입히는 것은 일부 가정에서만 행했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아이가 귀한 가정에서는 백일 행사를 생략하기도 하였다. 백일 행사를 했던 경우에도 성대한 잔치 형식을 취하기보다 간소하게 음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행사를 대신했다.

① 돌상이나 하지. 백일상은 하질 않아. 백설기나 백일에 해주지. 짚사는 집도 그렇게 안해. <A②>

- ② 백일떡 동네에 돌리고. 말은 백집이 먹으면 오래 명이 길다 그러지. <A⑦>
- ③ 백설기 동네에 나눠주면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대. 백날 살려면 백날에 먹어야 좋다고. <B①>
- ④ 백설기하고 지금은 팔단지라고 수수팔떡, 그런 거 해서 백집은 나눠 먹었어. 근디 없는 사람은 그것두 못하지. 그렇해야 장수하라구. <B⑨>
- ⑤ 백일 때 뭐 백집을 땡기면서 한 숟갈씩 다 쌀 걸어다가 딱히는 거 것두 있는데 나는 안 했어. 그냥 백설기해서 다 노나먹고 그랬지. <C⑦>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별면접자의 대부분은 백일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백설기를 만들어 돌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백설기를 백 사람에게 나누어 먹어야 좋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의례는 아기의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행하는 행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입혀졌다고 하는 백줄 누비저고리나 백조각의 천을 이은 저고리의 풍습에 관해서는 개별면접자들의 대부분이 알지 못했다. 또한 그러한 풍습을 알고 있는 대상자들도 일부 상류계층에서 행해지던 풍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복식의 풍습이 서민층까지 일반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① 백줄 누비 저고리 그런 건 몰라 못 들어 나는. 그런 건 못 들어 봤어. <A⑥>
- ② 백줄 누비저고리 입히고 백조각 천 이어서 만드는 거 그런 건 부잣집이나 그렇게 해쥬. 명길라고 그렇게. 우리네는 사람은 그렇게 할 저 것도 안 되지만은 그게 그냥 되는 대로 해 입히고 그런 거지. <A⑩>
- ③ 백줄 누비저고리 그거 해주는 사람들은 해줬는데. 드물어 그거 하는 게. <B②>
- ④ 백줄 누비저고리나 백조각 천을 이어서 저고리를 만들어 입히면 오래 살고 좋다고 하는 많이 들었지 그런 소리. 해보던 안 했어. 애기만 들었어. <B④>
- ⑤ 백줄 누비저고리 그런 건 안 했어. 들어보기는 했어두 그렇기 안 했어. 동네 주변이두 있었는데 입은 것두 봤어두 우리는 그런 거 해 입히구 그러기 안 키웠어. <B⑥>

백일에도 삼칠일과 마찬가지로 의복을 새로 만들어 입힌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백일에는 의복을 새로 만들어 입히기보다 입혔던 옷을 새로 빨아 입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에 입히는 옷은 남아와 여아의 구별이 없으며 의복의 색깔은 대부분

<표 4> 1920~1950년대 백일(百日)의 특성

지역	번호	백일	백일행사의 내용	백일의복	백일의복 색깔	남·녀구분
서울 경기 (A)	①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특별히 만들지 않음	흰색	없음
	②	했음	백설기	특별히 만들지 않음	흰색	없음
	③	했음	백설기	특별히 만들지 않음	흰색	없음
	④	안했음	.	.	.	기억 안남
	⑤	안했음
	⑥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특별히 만들지 않음	흰색	없음
	⑦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특별히 만들지 않음 두랭이(여아), 풍차바지(남아)	흰색	있음
	⑧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특별히 만들지 않음	흰색	없음
	⑨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특별히 만들지 않음 서양식내복 입힘	흰색	없음
	⑩
충청 (B)	①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백날저고리 사입힘	흰색	없음
	②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특별히 만들지 않음	흰색	없음
	③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특별히 만들지 않음	흰색	없음
	④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저고리, 바지 새로 만들어 입힘	흰색	없음
	⑤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저고리 만들어 입힘	남아: 옥색 여아: 분홍색	있음
	⑥	안했음
	⑦	기억안남
	⑧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저고리 만들어 입힘	흰색	없음
	⑨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천 백조각으로 저고리 만들	흰색	없음
	⑩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특별히 만들지 않음	흰색	없음
강원 (C)	①	안했음
	②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특별히 만들지 않음	흰색	없음
	③	안했음
	④	남아:했음 여아:안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저고리 만들어 입힘	흰색	없음
	⑤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저고리 만들어 입힘	흰색	없음
	⑥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서양식으로 입힘	흰색	없음
	⑦	했음	백설기, 동네에 나눠줌	저고리 만들어 입힘	흰색	없음

흰색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색깔 있는 옷을 입히기도 하지만 돌이 되기 이전까지는 흰색의 의복을 계속해서 입혔다.

- ① 백일 때나 인제 색깔 있는 건 안허구 그냥 하얀 거 깨끗한 걸루. 그 백일 안에 입던 건 인제 호락하니까 좀 새겔루다가 해서 입히지. 남자애기, 여자애기 구별 없지. <A①>
- ② 지름들 그렇게 색색이 입히지 옛날엔 어른에 백일까지 하얗게 입혀. 백일 옷은 구별 없어. 다 하얀 걸루 해주지. 남자, 여자 다 똑같애. <A②>
- ③ 백일 때 그냥 깨끗하게 해 입히는거. 백일 때두 해입히는 사람이나 입히지 안 해 입히는 사람은 못 해줬어. 그 때는 어려워 가지구. <B②>

- ④ 옷은 뭐 그때 용으로 해서 길쭉하게 해서 입혔어. 돌 전에는 하얀 색깔 많이 입혔지. 남자에게가 여자애기 옷 비슷하게 입혔지 그냥. <B④>
- ⑤ 옷은 그저 입던거 깨끗하게 빨아 입히른 되는 거 그냥. <C②>
- ⑥ 백일 옷은 새로 맨글어 입히지. 저고리 하얀 색깔. 백일정도까지는 하얀 옷 계속 입히지 그렇지. 무색옷²⁹⁾ 그런거 뭐 커서 한 서너 살 거진 되야지 인제. <C④>

전통적인 아동복식이 대부분 색상이 화려한 것들이 많으나 돌 이전의 아동에게는 흰색의 옷을 많이 입혔다. 흰색의 의복을 입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민족이 백색을

승상하여 흰색의 옷을 즐겨 입었다³⁰⁾는 설 이외에도 흰색 의복은 깨끗해 보일 뿐 아니라, 아기의 의복은 자주 세탁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이나 실용적인 면에 적합했을 것이다.



〈그림 4〉 백일 사진
박재x 소장, 1933년

출산 후 삼칠일까지의 모든 행사가 주로 아기를 보호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로서 금기(禁忌)사항이 주를 이루는 것과 비교하여 백일은 아기를 중심으로 한 아기 본위의 첫 행사이다.³¹⁾ 그러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백일은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복의 비중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1933년에 찍은 백일 사진으로 서양식으로 옷을 갖추어 입혔으나 망토 안에 노리개가 달린 주머니를 채웠고 타래버선까지 갖춘 것으로 면접자의 경제 상황이 낡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첫돌 복식

돌³²⁾이란 아기가 출생 후 해마다 그 날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생 후 1년이 되어 첫 생일을 맞으면 첫돌 돌째 해가 되어 두 번째 생일을 맞으면 두 돌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첫돌 이후, 해가 거듭됨에 따라 돌이란 표현 대신 생일이라고 한다.

‘첫돌 의례’는 아기가 출생하여 처음 맞는 생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삼칠일과 백일을 지나 아기가 3번째의 위험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고 산모 역시 1년이 되면 모든 기능이 거의 회복되어 건강해질 수 있음을 축하하는 잔치를 한다. 첫돌에는 아기를 위해 첫돌 복식을 준비하며, 돌상(床)을 차리고, 돌잡이도

한다. 첫돌에 행하는 의례와 차리는 음식 및 복식은 모두 아이가 자라면서 액을 피하고 장수하며 복이 오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돌 의례와 돌잡이의 풍속에 관한 연원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왕가의 기록은 조선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반가(班家)에서의 풍습은 『양아록(養兒錄)』(1552), 『쇄미록(瑣尾錄)』(1598) 등의 16·17세기를 전후로 한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³³⁾

첫돌 행사는 백일 보다는 비교적 성대하게 치르며 간혹 백일잔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잔치는 웬만한 가정이면 반드시 차려준다³⁴⁾고 한다. 그러나 돌잔치를 행하는 경우에도 집안마다 편차가 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잔치를 크게 하고 의복도 화려하게 갖추어 입혔으나 대부분의 서민계층에서는 소박하게 돌잔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① 첫돌 잔치 잘 해줬어. 즈 할머니가. 돌상 받고 사진 찍은 거 있어. 〈A②〉
- ② 첫돌 부자구 그런 사람은 잘 하지 보통 사람은 안 해줘요. 옷은 그냥 입히고 먹구 끓이구 하얀 쌀밥 해주고, 수수팥떡 해주고 송편도하고. 하는 거는 다 해주지만은 가난해서 다 잘 못했어 요 옛날에. 〈A③〉
- ③ 돌이야 대개 해주지. 〈B③〉
- ④ 생일(돌)은 해 줘. 아무리 읍셔두 쉬수(수수), 한해께 쉬수뿌리 같이 살라구. 백설기는 저 오래 살라구 하구, 송편(송편) 고통게 했어. 〈C①〉
- ⑤ 돌, 수수팥떡하구 흰무리 찌웠어. 공책 뒤 실 그런거 노른. 어떤거 먼저 집나 그것만 보는규. 〈C②〉
- ⑥ 아이 돌 잔치 엄청 해줬지. 〈C⑦〉

개별면접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돌잔치를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데 집안의 풍습에 의해 일부러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 ① 우리 아버지가 돌상을 못 받았대. 그렇다구 아버지 안 하면 안 하는 거라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셋인데 돌상 하나도 안 했대. 〈A⑩〉
- ② 돌잔치도 안 했어. 그눔(딸)만 해두 셋은 키우는데. 아니 하나(아들)라두 있으야 즈 아버지가 좋아라구 하논디 안 좋아하구 또 시어머니두 있구 한디 무슨 돌잡기(돌잔치)를 하졌어. 〈B⑦〉

첫돌에 입히는 복식은 이전에 입는 복식과는 다르

〈표 5〉 1920~1950년대 돌의 특성

지역	번호	첫돌의례	첫돌복식		돌잡이	돌선물
			남아	여아		
서울 경기 (A)	①	했음	저고리, 두렁치마, 돌띠	저고리, 두렁치마, 돌띠	했음	없음
	②	했음		치마(분홍색), 저고리(노랑색)	했음	없음
	③	했음	· 첫아들: 바지(양회색), 저고리(옥색), 조끼, 타래버선 · 둘째아들: 고모가 서양복을 사움(바지, 남방)	웃을 사다 입힘	했음	실, 돈
	④	안했음				
	⑤	했음	특별히 만들지 않음		했음	실, 돈
	⑥	했음	바지(보라색, 회색), 저고리(분홍색), 조끼(빨강색), 타래버선		했음	실, 돈
	⑦	했음	저고리, 바지(재회색), 조끼(남색), 마고자(남색), 복건(사서씨움)	색동저고리, 치마(빨강색), 단속곳(노랑색)	했음	실, 돈
	⑧	했음	색동저고리, 바지, 조끼(남색), 타래버선, 주머니	색동저고리, 치마, 타래버선, 주머니	했음	실, 돈
	⑨	안했음				
	⑩	본인의 첫돌		바지, 저고리(흰색)-남동생보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했음	반지, 금단추, 피아노
충청 (B)	①	했음	색동저고리, 바지, 조끼, 돌띠		했음	실, 돈
	②	했음	저고리, 바지, 조끼, 타래버선, 돌띠	저고리, 치마, 타래버선, 돌띠	했음	실, 쌀
	③	했음	색동저고리, 풍차바지, 타리개버선, 돌띠, 주머니		했음	실, 돈
	④	했음	색동저고리, 바지(훈홍색), 조끼(남색), 타래버선, 주머니	색동저고리, 치마, 타래버선, 주머니	했음	실
	⑤	했음	저고리, 바지, 타래버선		했음	실, 돈
	⑥	했음	저고리, 바지, 주머니	저고리(노랑색), 치마(검정색), 주머니	했음	실, 돈
	⑦	기억안남				
	⑧	했음	저고리(흰색), 바지(흰색)		했음	실
	⑧	했음	색동저고리, 풍차바지, 마고자, 오방장 두루마기, 타래버선, 돌띠, 주머니, 복건	색동저고리, 치마, 당의, 까치두루마기, 타래버선, 주머니, 돌띠, 조바위	했음	실, 돈, 쌀
	⑩	했음	색동저고리, 풍차바지(곤색), 타래버선, 주머니	색동저고리, 치마(분홍색), 타래버선, 주머니	했음	실, 돈, 쌀
강원 (C)	①	했음	색동저고리, 풍채바지, 버선, 주머니	색동저고리, 치마, 버선, 주머니	했음	실, 돈
	②	했음		저고리(노랑색), 치마(빨강색), 타래버선	했음	실, 쌀
	③	했음	누비저고리(연분홍색), 바지(남색), 조끼(남색), 마이가개(앞치마), 주머니		했음	실, 돈
	④	했음	저고리, 바지, 조끼, 타래버선, 주머니	저고리, 치마, 타래버선, 주머니	했음	실, 돈
	⑤	했음	저고리(옥색), 바지(보라색), 색동마과, 타래버선, 주머니, 돌띠		했음	실, 돈
	⑥	했음	서양식으로 입힘		했음	돈, 반지
	⑦	했음	서양식으로 입힘		했음	실, 돈

게 종류도 다양해지고 색상도 화려해진다. 돌 이전에 입던 옷은 주로 흰색이었지만 돌 이후에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히기 시작하며 남아는 바지, 여아는 치마를 입히기 시작한다. 또한 첫돌 복식은 '일습35)' 이라고 하여 의관을 모두 갖추어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일습의 구성 양상은 왕가나 반가(班家)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복식의 구성요소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조사기간의 첫돌 복식의 구성은 현재 돌 복식의 정형(定形)으로 생각되어지는 복식36)과는 조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류계층이 첫돌 복식을 다양하게 갖춰 입히는 것과 비교하여 일반 서민 가정에서는 비교적 간소한 복식을 입혔다.

- ① 돌 때는 조금 달르게 입히지. 만들어 준 두랭이 새루 뉘비고 바지는 그 때도 못 입혀. 걸어댕겨야 바지를 해입히지. 긴 저고리 할 제 돌띠가 있지. 그거는 오래 살으라구. 조끼 같은 것두 없었어요. <A①>
- ② 돌 때는 옷 새로 맹걸어(만들어) 입혔지. 바지, 저고리 해서 조끼겨정 다 해서 그렇게서 입히지. 그 때만 해두 마고자 안 해줬을꺼여. 여자애기들은 돌 때 치마, 저고리 입히지. <A⑧>
- ③ 돌 때 두 옷 따루 지어 입히지. 곱게 해 입힐라 큰 곱게 해 입히구. 남자에들두 까치저고리하구 째끼(조끼)하구. 바지하구 조끼하구 저고리하구 그렇게서 입혀. 여자들은 차마해서. <B②>
- ④ 돌 때는, 애기 옷 까치 저고리. 남자애기는 까치 저고리랑 바지. 풍채바지라 그런 것 같애. 조끼나 마고자 같은 거 안 입혔어. 주머니는 둥그란 주머니. 돌 때 돈 넣어줄라구 선물했지. <C①>
- ⑤ 돌 때 옷을 따로 맨들어 입히지. 땡주다 남몰드려 바지하구. 연분홍 드려서 뉘비저고리 하고 또 마이가끼(앞치마)라구 앞걸이라구 하는게 있어. 그러구 조끼 같은 거 해 입혔어. 분홍저고리에다가 남조끼 또 연두조끼. 주머니는 하나 채키지. 돌 때는 고때 돈이 들어오거든. <C③>
- ⑥ 첫 애기 돌 때는 주로 양복 사서 입혔지. 주로 실용적인 거를 했지. 한번입고 고만두는 거 아니니까. 한복 안 입히고. 그 당시에 아동복 사서 큼직하게 커서 걸어서 유치원 때까지도 입을 수 있는. <C⑥>

개별면접자의 대부분이 첫돌에 복식을 새로 해 입혔는데 남아의 첫돌 복식으로는 저고리, 바지와 조끼까지 해주는 것을 성장으로 생각했고, 여아의 경우에는 저고리와 치마를 해 입혔다. 이 때 입히는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한쪽 고름을 길게 달아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돌띠'라고 하며 이와 같은 특징은 4~5세의 아동복까지 많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남아와 여아 모두 두루마기를 입히지 않았고 쓰개도 하지 않았다. 집안에 따라 갖추어 입히는 옷의 구성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알려져 있는 성장(盛裝)의 개념이 일반 가정에까지 통용된 것은 아니며 첫돌 복식에 완벽한 정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양복이 등장한 이후에는 첫돌복식으로 서양복을 사서 입히기도 했다.

색동저고리와 오방장두루마기는 여러 가지 화려한

색상의 옷감을 사용해서 만든 복식으로 돌을 맞은 아들이나 명절복으로 많이 입혔다. 특히 색동의 배열이나 오방장 두루마기에 사용하는 색상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오행을 두루 갖춘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기운을 막고, 아동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³⁷⁾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방장두루마기를 입힌 경험이 있는 개별면접자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아동복식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 ① 돌옷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해주는 거 아무 것두 없어. <A②>
- ② 오방장두루마기 그런 거 몰라. <B①>
- ③ 오방장? 그 때는 그런건 몰르구. 내 맘다루 숨씨껏 그냥 뵘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해 입혔지. 돌 때 해 입히는 저고리나 바지. 그건 제 맘대로 하는겨. <B②>
- ④ 오방장두루마기? 들어봤지. 내가 해 입던 안 했어두. 애기가 조라구(종으라구) 해주는 겨. <B④>
- ⑤ 오방장두루마기가 뭐여? 그런 건 구경도 못했네. 못 들어봤어. <B⑩>

여러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아동의 복식을 만들어 입혔던 경우에는 오행의 의미보다는 색상의 화려한 배열에서 오는 미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림 5> 남아 돌 사진
조라× 소장, 1926년경

첫돌 의례의 행사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돌잡이는 집안마다 차이는 있었겠지만 <표 5>에서

보이듯이 개별면접자의 대부분이 실행했으며, 의복에 담겨있는 의미를 모르는 것과 비하여 돌잡이의 의미는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돌에 받는 선물은 주로 실과 돈이었는데 이와 같은 선물은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는 1926년에 찍은 남아의 돌 사진으로 색동두루마기 위에 전복을 입히고 복건까지 갖추어 찍었다.

5. 기타

어린 아기에게 출생과 관련한 각종 금기(禁忌)사항이 많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영아의 사망률이 높아 유약한 어린 아기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했다. 이와 같은 소망은 각종 금기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실의 사용이나 돌띠 등의 의복을 통해서도 보인다. 이 외에도 장수를 소망하는 금기 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었는데, 특히 형제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었던 개별면접자의 경우에 특별한 금기 행위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주머니는 달아줬지. 어려서 목에다 달아줬어요. 쪼그렇게 부전조개 모양(모양)으로. 근데 그걸 명을 길이라고 그거 열어보지 못하게. 아주 친친이 빨간 걸로 해서 이렇게 엮어매서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배락(벼락) 맞은 나무, 또 오래 산 할머니 머리카락 고런 거를 부적하구.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열었는데 나하구 동생하구 밖에 없잖아.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목에다가 목걸이처럼 해서 그걸 부적으 걸어줬어. 한 열 살 까지는 내가 그거 달구 땡겼어. 〈C7〉

또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기의 몸에 피가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금기 행위를 통하여 이를 정화시키려고 하였다. 개별면접자 중에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는 없으나 이와 같은 예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엄마가 순산할 적에 피가 묻어서 나오는 애가 있거든. 그런 애들은 홍맹이³⁸⁾라 구래서 빨간

- 옷을 입혔어요. 어렸을 때. 바지, 저고리를 그냥 빨강물을 들여서 그거를 해입히대. 그걸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하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빨강 옷을 그렇게 열 살까지 그렇게 해 입혀요. 〈A④〉
- ② 피 묻어 나오는 애들은 살인을 낸다. 그러니까 잘 방지하는거지. 빨간 저고리를 입히면 좋다고 입혔어. 입은 거 보기가 봤지. 〈B①〉
- ③ 살에 피가 묻어 나오면 개가 크면은 살인을 낸다. 칼잡이한테 가서 쪼끄맏게 칼을 맨들어서 애 비개(베개) 속에다 넣어 주는겨. 그러믄 개가 커서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거지. 〈B②〉
- ④ 애기 나올 때 살에 피 묻으면 안 좋대. 그런 사람은 낳으면 처음에 배넛저고리로 빨강 저고리를 해 입혀야지 그게 방해가 된대. 〈B③〉
- ⑤ 태어날 때 살에 피묻어 나오면 안 좋다고. 그러구 태도 걸구 나오구 그럼 이름 걸어준다고. 이런 모본단 빨간거 쪼가리. 그 애기 홍저고리 갖다주면서 그 가사(歌)에 넣어달라고 절에다가 주는 거예요. 〈C7〉

이 때 부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옷감이나 의복의 색깔은 붉은 색이 많다. 빨간 실을 사용해서 주머니를 묶는다거나 빨간색으로 저고리를 만들어 입히는 것과 같은 행위가 그러한데 대부분의 개별면접자들은 부정을 액막음 한다는 의미에서 붉은 색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붉은 색에 관한 벽사(辟邪)³⁹⁾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기의 장수와 복록(福祿)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실이나 돌띠의 사용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1920~1950년대의 출생의례복에 관한 것으로 문헌 및 유물자료의 고찰과 더불어 서울·경기, 충청, 강원지역의 개별면접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개별면접자들의 대부분은 자녀 출산의 경험이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입혔던 출생의례복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었다.

1920~1950년대의 출생의례복으로는 배넛저고리와 두렁치마, 풍차바지 등이 있었다. 배넛저고리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입히는 옷으로 주로 흰색의 부드러운 면직물로 만들며 고름은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실로 달아주었다. 배넛저고리를 시협

이나 큰일이 있을 때 옷 속에 넣어주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여 부적처럼 사용하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출산의 과정에서 아기의 몸에 피가 묻어서 나오는 경우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액막음의 방법으로 부적을 해주거나 빨간색의 저고리를 만들어 입히기도 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붉은색에 대한 벽사(辟邪)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두렁치마와 풍차바지는 남아와 여아의 구별 없이 입히는 의복으로 대체적으로 출생 후부터 4~5세 정도까지 입혔다. 이 시기는 아동이 배변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기저귀를 갈기 편안한 옷을 많이 입혔으며 뒤가 트인 두렁치마와 밑이 트인 풍차바지는 실용적으로 사용되었다. 5세 이후에는 여아는 치마를 입고 남아는 성인 바지와 같은 형태의 바지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개 백일은 간소하게 치르고 의복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돌은 백일과는 달리 아기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고 돌잡이 등의 행사로 아기의 무병장수와 복록을 점치고 기원하였다. 대체적으로 돌 이전에는 흰색의 옷을 많이 입히고 돌 이후부터 색깔이 있는 옷을 입히기 시작하였으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 시기의 출생의례복식은 구성에 있어서 세 지역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이가 출생 후 첫 돌까지 삼칠일, 백일 등의 의례를 거치게 되는데, 모든 시기마다 새로운 의복을 갖추어 입히지는 않았다. 현재에 비해 영아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소망하였는데 이러한 마음은 의복보다는 의례 자체에 집중하여 표현되었다. 집안의 풍습이나 경제력에 의해 의례의 내용이나 갖추어 입히는 의복에는 차이가 있지만 돌이전의 의례를 소홀히 하였어도 첫돌에는 대부분의 개별면접자들이 의복과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는 첫돌이라는 의례를 거치면서 아이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아동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의례에 비해 첫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아동복식은 출생의례복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의례와 연관되는 복식은 약간의 상

징성을 담고 있어 일상적인 아동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실생활에서 착용하였던 일반적인 복식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 시기의 아동의 복식을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경화, 안미선 (2004). 제주도 전통 產育俗의 전승. *아동학회지*, 25(1), pp. 93-112.
- 이경복 (1979). 조선시대 산속연구. *한국민속학*, 11, pp. 47-64.
- 홍순례 (1995). 產俗에 나타난 胎占·胎夢研究. *한국민속학*, 27, pp. 523-540.
- 윤여송 (1994). 產俗 禁忌의 意味 研究. *人文社會科學研究*, 1, pp. 7-31.
- 지춘상 (1979). 진도의 통과예1. *湖南文化研究*, 10, pp. 241-269.
- 홍순례 (2002). *기자신앙연구 : 금기와 전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익 (1989). *韓國敍事文學의 祈子信仰 연구: 文獻說話 古典小說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주 (2005). 강원지역 기자속의 유형과 특징. *博物館誌*, 12, pp. 87-109.
- 최재락 (2005). *江陵의 祈子信仰과 文化*. 강릉시 문화관광복지국.
- 민하영, 유안진 (2004). 한국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 풍속의 문화간, 세대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4), pp. 55-68.
- 민하영, 유안진 (2003).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출생의례 및 아기행사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pp. 45-56.
- 문화재관리국 (1993).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產俗篇.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경기도박물관 (2001). *경기민속지, IV: 의·식·주 편*.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02). *경기민속지, V: 일생의례 편*. 경기도박물관.
- 고부자 (1981). *濟州道 通過儀禮服의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은희 (2000). *출생 의례복식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부자 (2007). 우리나라 乳兒儀禮와 服飾의 民俗 연구. *비교민속학*, 34, pp. 245-274.
-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20세 이전에 혼례를 하였다. 개인적인 이유로 혼례를 늦게 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17~18세 사이에 혼례를 치른 경우가 가장 많았으므로 자녀의 연령대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홍순례. *앞의 글*, p. 3.
- 이광규 (1985). *한국인의 일생*. 형설출판사, pp. 39-40.

- 9) 위의 책, p. 39.
- 10) 유희경 (1998). *출산의례에 따른 복식*. 한국전통생활 문화학회, p. 2.
쌀깃 또는 강보(襁褓)라고도 하며 아기를 싸주는 얇은 포대기를 말한다.
- 11) 유부×, 윤차×, 박계×, 박시×.
- 12) 조희진 (1998). *첫돌 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의례적 의미*.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71.
- 13) 박성실 (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 286.
- 14) 憑虛閣 李氏 著, 정양완 역 (1975). *閩閩叢書 寶晉齋*, p. 340.
- 15) 허준 著, 동의보감국역위원회 편 (1966). *國譯 東醫寶鑑*. 풍년사, p. 1008.
- 16) 문화재관리국 (1986).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衣生活 卷*.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 64.
고부자 (2007). *앞의 글*, p. 249.
- 17) 문화재관리국 (1986). *앞의 책*, p. 38, p. 95.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침선장*. 국립문화재연구소, p. 48.
- 18) 최남선 著,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전집 편찬위원회 편 (1973). *六堂 崔南善全集*, 3, p. 47.
'이칠일(二七日)은 '두닐해'라 하여 깃 있는 옷에 두령이를 입고 한쪽 팔을 마저 풀어주며 삼칠일(三七日)에야 비로소 상유하고(上襦下袴)의 구양(具樣)한 의복을 입혔다.'
- 19) 이은진 (2000). *해방 이후의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6.
- 20) 위의 책, p. 41.
- 2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80). *韓國民俗大觀*, 第1卷,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 542.
'7일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의 습속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선호성(7의 수가 길(吉)한 숫자라는 속신(東身))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 22) 금줄의 풍습은 비교적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개별면접자 대부분이 금줄을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 23) 이춘자, 김귀영, 박혜원 공저 (1998). *통과 의례 음식*. 대원사, p. 28.
'삼신이란 아기의 점지, 출산, 아기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며 보호하는 세 신령을 말한다. 삼신을 산신(産神)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산(産)을 주관한다는 의미이다.'
- 24) 위의 책, p. 32.
백(百)이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 '모든', '다'의 의미를 지닌 축복의 숫자이다. 흰색의 백설기, 흰쌀밥, 백날까지 아기에게 입히는 흰옷이 상징하는 청정의 백(白)과 백 날의 백(百)이 갖는 의미가 모두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 25) 이동호 편저 (1996). *신구가사편람*. 태성출판사, p. 44.
- 26) 이춘자, 김귀영, 박혜원 공저. *앞의 책*, p. 31.
- 27) 국립민속박물관 (1996). *한국복식 2천년*, p. 231.
- 28) 이동호 편저. *앞의 책*, p. 44.
- 29) 고부자 (2007). *앞의 글*, p. 255.
- 무색이란 색이 없다는 것((無色)이 아니라 불색(有色))을 말한다.
- 30) 진수 著, 배송지 주 (1990). *三國志 卷13 第13 夫餘*. 北京: 中華書局.
在國衣尙白 白衣大袂袍袴 履革鞬.
魏徵 撰, 武秀成, 趙益 [共]譯注 (1991). *隋書選譯 卷81, 列傳, 第83, 新羅條, 制46 東夷新羅*. 成都: 巴蜀書社.
服色尙素 婦人縹髮饒頭 以雜綵急珠爲飾.
- 31) 이동호 편저. *앞의 책*, p. 44.
- 32) 어린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을 말하는데 생일이 돌아온 횃수를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특정한 날이 해마다 돌아올 때, 그 횃수를 세는 단위를 의미하기도 한다.(http://krdic.daum.net)
- 33) 조희진 (1998). *앞의 글*, p. 19.
- 3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80). *앞의 책*, p. 548.
- 35) 조희진. *앞의 글*, p. 32.
첫돌 복식의 일습이라 함은 가장 첫돌 차림새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말한다. 즉, 쓰개를 비롯하여 바지·저고리·조끼·마고자·(오방장)두루마기·(타래)버선·기타장신구까지 모두 일컫는 것이다.
- 36) 조희진. *앞의 글*, p. 28.
정확한 연원을 알 수 없으나 남아 첫돌 복식은 기본형인 바지(풍차바지)와 저고리 외에도 두루마기 위에 전복을 입고 복건을 씌우는 것이며, 여아의 경우 색동저고리와 붉은 색 계통의 치마를 기본으로 입히는 것이 첫돌 복식의 정형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 37) 김양기 (1987). *한국 민속의 뿌리*. 조선일보사, pp. 215-216.
- 38) 민숙현, 박혜경 공저 (1981). *한가람 봄바람에: 이화 100년사*. 지인사, p. 112.
이와 비슷한 단어로 '홍등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화학당 소녀들을 일컫던 말이었다. 한국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은 형태가 기숙학교였기 때문에 학생 한 사람이 들어오면 침모가 서둘러서 새 옷을 지어 입혔다. 학생이 열명을 넘자 아라사(노서아(露西亞), 곧 '러시아의 한자음 표기. 야국(俄國))제의 붉은 목면 옷감으로 만든 치마, 저고리를 똑같이 해 입혀서, 항간에는 이화학당 소녀들을 '홍등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39) 붉은 색이 벽사(辟邪)의 색인 동시에 상서로운 길색(吉色)으로 인정된 근원은 고주몽이 붉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처용탈의 가면이 붉은 색이라는 점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붉은 색은 귀신으로부터 유약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으며 이외에도 어린 아기의 생일에 수수팥떡을 해주거나 동지에 붉은 팥죽을 뿌리는 행위 등도 붉은 색의 벽사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